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2월 7일

CUOMO 주지사, 조기 게양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진주만 피습 기념일(Pearl Harbor Remembrance Day)을 맞이하여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진주만의 피습 공격으로 뉴욕 출신자 40명을 포함해 무려 2,400여명의 미국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진주만 피습 기념일에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과 함께 끔찍했던 진주만 공격 72주년을 맞이하여 잠시 묵념을 하면서 당시 피습으로 사망한 분들을 기릴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은 우리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미국을 2차대전으로 몰고간 '영원히 기억될 불명예의 날'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신해 진주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전하고 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 힘쓰고 있는 군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에서는 미국의 다른 주들보다 많은 170만여명의 뉴욕인들이 2차대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오늘은 2차대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날이며, 특별히 진주만에서 운명의 날에 참전하다 목숨을 잃은 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및 시민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모든 주정부 건물의 깃발들은 우리 뉴욕주의 군인들과 뉴욕에 주둔하면서 전투 중 사망했거나 교전 지대에서 사망한 분들을 기리는 의미로 조기로 게양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